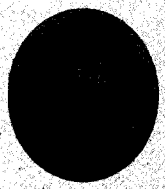
연고(緣故)의 늪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들로 얽히게 된다. 불가에서는 서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윤회로 이어진 인간의 삶에서 언젠가 기억하지도 못할 까마득한 전생에 쌓은 원인이 현세에서 옷깃을 스치는 것으로 재생됐다는 뜻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나는 나다'를 외치며 독자적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써도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당부분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숙명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좁은 [illegible] 토막 난 대한민국에서 땅이름 들먹이고, 살아온 동네이고, 학교를 들먹이고, 군대를 들먹이고, 지금을 들먹이다 [illegible] 아가 없다는 말이 [illegible]

[illegible]

는 이건 아니건 그다지 다르지 않다. 어느 나라 사람인들 연고와 무관할 수는 없을 테지만 정 많고 감정이 풍부한 우리들은 더욱 쉽게 '연고의 늪'에 빠져든다.

요즘 나라 안이 어지러지기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들로 뒤숭숭하다.

일반인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이고 복잡 다단한 게이트들이지만 밑이 이기까지 이르게 된 핵심은 따지고 보면 연고주의의 소산이다. 국립 [illegible]

[illegible]